



# 정교회주보

제2479호

2024.06.30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메테오라의 수도원 탐방 4> 높이 85m의 작은 바위 기둥 위에 세워진 성 니콜라스 아나파브사 수도원(사진)의 이름은 아마도 이곳 바위 위에서 수행했던 14세기의 수도자에게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6세기에 재건된 수도원이 세워진 바위는 면적이 매우 좁아 규모를 확장할 수 없는 환경으로 건축에 영향을 주었고, 해결책으로 연속으로 이어진 3층 건물로 지어졌다.



마태오 제1주일  
(모든 성인들의 주일)

12 사도 연관 축일  
(제8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 모든 성인들 찬양송 ..... 269
- 사도 찬양송 ..... 84
- 모든 성인들 시기송 ..... 269
- 사도경 : 히브리 11,33~12,2 ... 269
- 복음경 : 마태오 9,36; 10,1~8 .....  
(마태오 제3주간 월요일)
- 영성체성혈송 ..... 27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도 던져집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구세주와 나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너무도 자주, 나의 삶, 나의 행위들은 그와 같은 확언과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나는 겸손하게 “내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했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 지혜로울 것인가, 어리석을 것인가?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바**울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에페소 5,15) 바울로 사도가 말하는 이 지혜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 높은 교육 수준, 학문 등을 지혜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즉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고, 겸손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로마서 1,22)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내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참과 거짓, 일차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유용하고 필요한 것과 쓸모없고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쓸모없고 불필요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에페소 5,10)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삶과 행동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사역’으로 봅니다. 즉,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마르코 10,45)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정신은 ‘누가 더 높은 곳에 오를 것인가’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베풀 것인가’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이끕니다. 물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경향은 인간에게 타고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정상을 오를 때 독수리처럼 하늘 위를 날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도마뱀처럼 요리조리 기어다니는 전술을 써서 하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시는 지혜, 영적인 지혜의 특징은 자기 인식, 삶의 올바른 기준, 봉사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아무리 높은 곳일지라도

넬슨 만델라(전 남아공 대통령, 1918-2013)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내가 거둔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는가 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십시오." (넬슨 만델라)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뒤, 한번은 경호원에게 도시를 좀 걸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걷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한 식당에 들르게 되었다. 우리는 식당 가운데에 있는 자리에 앉아 각자 음식을 주문하였다.

조금 지나자 종업원이 우리가 시킨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순간 나는 우리 자리 바로 앞쪽에 한 남자가 혼자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시킨 음식이 나왔을 때 나는 경호원에게, '가서 저 남자더러 우리쪽으로 와서 함께 음식을 들면 어떻겠는지 물어보겠나'하고 시켰다. 경호원은 그 남자에게로 가서 나의 초대를 전달하였다.

그 남자는 자기 접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그는 음식을 먹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으며, 시선은 음식에 고정시킨 채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는 나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로였다. 나는 그와 악수를 하였고, 그는 비로소 식

당 밖으로 나갔다. 그때, 한 경호원이 나에게 말하였다. "대통령님, 저 남자는 중한 병이 있는가 봅니다. 그의 손을 보았는데, 식사를 하는 내내 계속 떨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네. 그가 손을 떤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라네."라고 나는 대답하였다. 경호원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들에게 설명해주었다.

"내가 교도소에 갇혀있을 때 그는 내 담당 교도관이었던데. 나는 너무도 자주 고문을 당했기에 그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물을 달라고 소리쳤고, 그러면 그는 내게 와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물을 주는 대신에 내 머리에 오줌을 누곤 하였지. 그는 병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된 나를 두려워하는 걸세. 내가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고문하고 모욕하면서 똑같은 짓을 할까봐. 하지만 그런 것은 나에게 맞지 않아. 그런 행동은 나의 성격이나 윤리가 아니라네. 우리의 도덕적 원리는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제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따라가야만 한다네..."

## 주간 예배 안내

\* 7월 1일(월)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알림

### ■ 대교구 주일학교 모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주일학교 학생들 모임이 온라인 (zoo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중요하니, 아이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줌 링크는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 서울 성당 주일 프로그램 안내

매 주일 성찬예배 후, 선교회관에서 점심식사가 있습니다. 이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신앙 강론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청년회 모임, 예비신자 모임, 영어권 신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구복회 모임은 한 달에 두 번(둘째 주, 넷째 주) 있고, 장년회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첫째 주)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수도원 줌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영성생활과 수도생활에 관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강론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평 수도원 구성원들과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아가티 수녀에게 문의 바랍니다.

## 영성의 샘터

## 행위와 일치하는 기도

모세 사부는 수시로 젊은 수도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의 기도가 행위와 일치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수고에 그치고 말 것이오.”

수도자들이 모세 사부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일치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성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기도에서 바라는 그것을 실천하면 될 것이오. 그리고 영혼 속의 모든 악한 의지들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낼 때, 비로소 영혼은 그의 창조주와 화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영혼의 기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